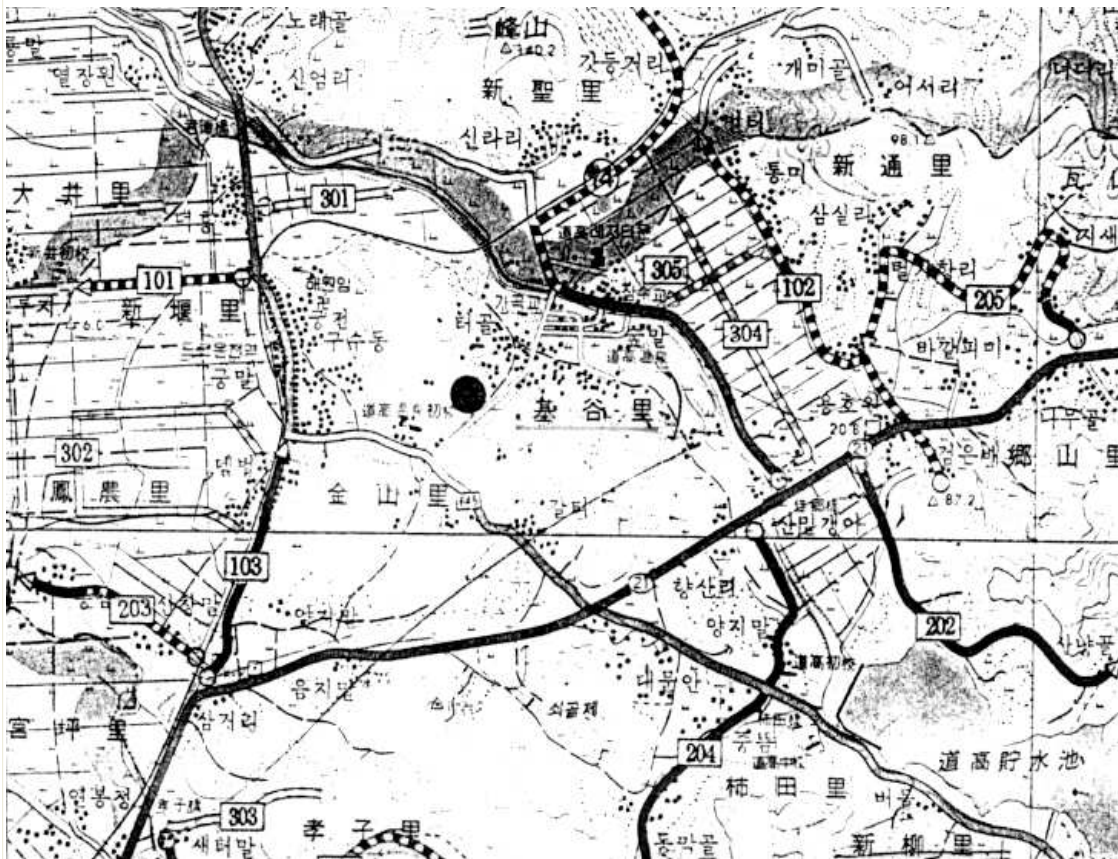


기곡리·基谷里

기곡리·基谷里

도고면은 한 마을로 물탕, 텃골, 숲말로 이루어 졌으며, 물탕은 도고온천이 있는 마을로서 도고온천이라고도 하며, 텃골 마을은 골짜기가 깊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숲말은 낮은 산이 반달 모양으로 둘러 있고 숲이 우거져 있어 불리워진 마을이며, 물탕은 상업이 농업보다 많으며, 텃골, 숲말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본래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남사창의 터가 있으므로 텃골, 또는 기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기곡, 하기곡과 신촌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기곡리라 하여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기곡리 위치도>



☒ 물탕, 텃골, 숲말 마을(기곡리)

기곡 1리는 물탕 마을이라 하며, 온천이 있다해서 붙여진 것으로 도고온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기곡2리는 텃골, 내건너로 이루어져 있으며, 텃골 마을은 남사창의 터가 있으므로 텃골이라 했는데, 기곡3리는 숲말이라 하며, 숲말과 샘골로 되어 있으며, 도고온천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낮은 산이 반달 모양으로 둘러 있고 숲이 어우러져 있으며, 샘골은 숲말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찬샘이 있어서 샘골이라 불리워 지고 있다.

<조사당시 기곡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물탕 마을은 위도 36-45-30, 경도 126-53-00의 위치에 있고 내 건너는 도고로 가는 길에서 우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갈림길에서 약 200m쯤 들어가서 도고천 북쪽에 자리잡고 있고, 아산시내 지역에서는 6-7km정도 떨어져 있다.

텃골 마을은, 위도 36-45-40 경도 126-52-50 경도의 위치에 있고 물탕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숲말 마을은 도고온천 동남쪽, 아래텃골 바로 부근에 있다.

2) 현 황

물탕 마을은 총 인구는 337명으로 남 160명, 여 177명으로 호구수는 127호에 이르며, 농업은 14.2%, 상업 41.2%, 기타 서비스업 44.6%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마을에 비해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다.

텃골 마을은 남 179명, 여 190명으로 총 369명이며, 호구수는 121호에 이르며 농업이 95%로 가장 많고, 축산업 4%, 기타 서비스업 1%를 차지하고 있다.

숲말 마을마을은 총 231명으로 남 108명, 여 123명으로 호구수는 82호에 이르고 있으며, 농업에 98%가 종사하고 있고, 축산업은 2%에 이른다.

- 인구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물탕 마을	337명	160명	177명
텃골 마을	369명	179명	190명

숲말 마을 마을	231명	108명	123명
----------	------	------	------

- 생 업

구분 마을명	계	농 업	축 산 업	상 업	기타서비스 업
물탕 마을	100%	14.2%	-	41.2%	44.6%
텃골 마을	100%	95%	4%	-	1%
숲말 마을	100%	98%	2%	-	-

물탕 마을의 농경지는 논 10.3ha, 밭 1.9ha로 농경지가 비교적 적은 편에서 밭이 매우 미비하고, 농기계는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으며 앰프 시설 및 농악기구들이 있고, 기타 시설로는 숙박시설, 목욕시설 및 식당 노래방, 각종 편의 시설이 있다.

텃골 마을의 농경지는 논 40ha, 밭 18ha로 기곡리 마을 중에서 농경지가 가장 많고,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건조기등 농경지에 비해 농기계는 적은 편이지만 트랙터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기계 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고 농악기구들도 있다.

숲말 마을 농경지는 논 20.7ha, 밭 13.9ha로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고 트랙터, 콤바인등 각종 농기계는 약간씩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이 1개소 있고, 앰프 시설 및 농악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물탕 마을	12.2ha	10.3ha	1.9ha
텃골 마을	58ha	40ha	18ha
숲말 마을	34.6ha	20.7ha	13.9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문화시설	기타문화시설
물탕 마을	1개소	1개소	-
텃골 마을	1개소	1개소	-
숲말 마을	1개소	1개소	-

물탕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살펴보면 김씨 26%로 가장 많고 이씨 17%, 박씨 7%, 최씨 4%, 정씨 5%로 나타나며 연령층은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텃골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김씨 37%, 이씨 16%, 박씨 12%로 나타나며, 연령층은 20~40대까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80세 이상도 많은 장수마을이다.

숲말 마을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은 김씨 34%, 이씨 15%, 박씨 10%, 순으로 조사 되

었고, 연령별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강씨	임씨	기타성 씨
물탕 마을	127호	33호	22호	9호	5호	6호	-	52호
덧골 마을	121호	45호	19호	15호	2호	7호	1호	32호
숲말 마을	82호	28호	12호	8호	1호	-	1호	32호

- 최고령자

물탕 마을의 최고령자는 장 간난 할머니로 89세이시며, 덧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종석씨로 82세이시며, 숲말 마을의 최고령자는 권천식씨로 88세이신데 아직도 농사일을 거두고 있다.

3) 자연경관

물탕 마을은 도고천이 흐르며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마을의 유황온천이 있으며, 내를 건너면 소나무 밭이 있고 내 건너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덧골 마을은 진골이 있으며, 골이 길고 깊어서 긴골이라 부르다 변하여 진골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도고천이 흐르며, 마을 입구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사라진지 오래다. 진골 밑에는 조상곳이가 발달해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야산을 일구어 밭농사를 짓고 있다.

숲말 마을은 물탕 마을에서 분리해 나간 마을로서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마을로서 생골이 있는데 생골은 숲말 마을 위쪽에 있는 골짜기에 찬샘이 있어서 샘골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4) 마을변천과정

물탕 마을과 덧골 마을은 원래 신창군 남하면에 속해 있던 것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기곡과 하기곡으로 나뉘던 것이 신촌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기곡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어 현재 기곡리가 생겼다.

숲말 마을은 기곡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가 기곡1리에서 20여년전에 분할되었다.

5) 입 향

물탕 마을은 옛날부터 강씨와 김씨, 이씨가 많이 살았으며, 터를 잡은 성씨는 진주 강씨이나 김씨와 이씨는 그 유래가 정확하지 않으며, 상권 형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성년대는 서기 1700년경 약 200년전쯤으로 추정 된다.

덧골 마을은 형성년대는 서기 1800년대 약 200년전쯤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이고 그 다음으로 이씨, 강씨와 밀양 박씨이다. 인구수는 약 30년전쯤에 가장 많았으며, 현재는 다양한 성씨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숲말 마을은 서기 1980년 약 20여년전에 기곡리 1구에서 분할되어 나왔으며,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이다.

6) 지 명

十 물탕 마을의 지명

·아래덧골(물탕) : 덧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온천이 나옴. 도고온천이 있음.

·도고천 : 도고천에서 발원하여 도고 저수지에서 기곡리를 거쳐 예산에 흘러오는 무한천과 합류하여 삽교천에 들어가는 내.

·버덩 : 나무는 없고 잡풀만 우거진 높고 평평한 곳.

·도고온천 (유황천) : 아래텃골에 있는 온천. 도고면의 이름을 따서 도고온천이라 함. 신라 때 태자가 이곳에 와서 초정의 물을 먹고, 유황천에 목욕하였는데 오랫동안 버림을 받다가 1912년 장항선이 통한 후로 다시 온천을 시설하여 전국에 선전함으로써 다시 유명해졌음.

·빠드리 : 아래텃골 앞에 있는 넓은 들

·도고수로 : 신유리의 도고지의 수로. 기곡을 거쳐 봉농리와 선장면 일원에 물을 댐.

·소나무밭 : 내건너 옆에 있는 버덩,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솔밭을 이루었음.

十 텃골 마을의 지명

·내건너 : 도고온천 북쪽, 내건너에 있는 마을.

·황소고개 : 텃골 남서쪽에 있는 고개. 텃골에서 신언리 감나무골 도고 국민학교로 감.

十 숲말 마을의 지명

·숲말 마을 : 도고온천 동남쪽에 있는 마을. 낮은 산이 반달 모양으로 둘러 있고 숲 숲이 어우러졌음.

·진골 : 텃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조상곶이 : 진골 밑에 곶으로 된 낮은 산.

·생골 : 숲말 마을 위쪽에 있는 골짜기. 찬 샘이 있음.

7) 전 설

十 유황천의 전설 (물탕 마을)

신라 진흥왕의 이야기다. 신라 진흥왕이 숲말 마을산의 삼봉산을 지나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다리 부러진 학이 어디론가 날아가서 한참을 있다가 오더라는 것이다. 이것을 궁금히 여긴 왕이 신하를 시켜 따라가 보게 하였더니 학이 내려 앉은 곳은 바로 지금의 온천수가 있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며칠후 보니 학의 다리는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고 한다.

十 효녀 이야기

지금의 도고 온천 옆산의 모퉁이에 송충이 모양의 긴 논이 있었는데 이 논을 썰기배미라 불렀다. 썰기배미 논 한구석에는 항상 조금씩 흐르는 웅달샘이 있었다 한다. 두메 산골의 외딴집에 반 곱추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홀 아버지를 모시고 외롭게 사는 딸이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 병환으로 시집도 못가고 노처녀로 지내며 집안 일을 혼자 해 나가며 아버지 병을 고치려고 지금의 신승리 부근에 사는 침의를 찾아다니던지 여러해였으나 그만큼의 정성을 들였으면 완쾌 되었을 만한데 병은 낫지 않았다. 어느날 아버지를 모시고 침의를 찾았는데, 썰기배미 웅달샘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학이 한 마리 앉아 있었다. 그는 무심코 지나쳐 침의의 집에 닿았다. 침의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군요" 하면서 처녀와 아버지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아버지와 딸이 웅달샘을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곳에 들리게 되었는데 학이 그때까지도 웅달샘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긴 딸이 학에게 다가갔으나 날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학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다리에 상처가 나 있는데 그 다리를 웅달샘에 담그고 있자 상처가 아무는 듯 했다. 딸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상하여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녀는 많은 생각 끝에 혹시 아버지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웅달샘에 가서 물을 한동이 떠와 아버지의 눈을 씻기고 잡수시게 하니 아버지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각 마을의 병환자들이 모여 들어 웅달샘물로 병을 고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평능이라는 사람이 샘을 잘 만들어 돈을 받고 물을 팔았다하며, 그 뒤 일본인 고옥득포가 유황수를 개발, 욕탕을 잘 만들어 유황천으로 알려진 것이다. 유황수는 위장병, 피부병 등의 효과가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十 황소고개의 전설(텃골 마을)

옛날 어느 조그만 마을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다. 총각은 인물도 뛰어나고 문장에도 특출하였다. 그런데 이 아들은 3대가 함께 사는 과부집의 독자였으므로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하루빨리 혼인시켜 대를 이을 자손을 얻은 안아보는 것이 소

원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3대째 내려오는 과부한테 딸을 주었다가 또 다시 그 딸마저 과부가 되면 어쩌느냐고 딸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다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그 집으로 딸을 주었다가는 시집살이도 못견딜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또한 비록 3대째 내려오는 과부 집안이기는 하나 며느리만은 좀더 좋은 집안에서 데려 왔으면 하고 생각했다. 이처럼 아들을 혼인 시키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 때문에 그 어머니는 무척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장가 들게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어머니의 위치에서는 마음씨를 좀더 고치고 며느리를 귀여워 해주는 시어머니가 되는 수 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조금씩 과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자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져 갔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이웃 마을에 사는 집안도 괜찮고 마음씨가 곱고 며느리 감으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처녀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 집에서는 비록 독자이기는 하나 그의 사람됨을 알고 딸을 내주기로 했던 것이다. 하루, 이들 세월은 흘러 결혼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물론 집안의 잔치 때문에 바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온 마을이 들떠 있었다. 그처럼 힘들었던 결혼이기 때문에 모두가 더욱더 술렁대는 것 같았다. 식을 올리고 나서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야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마꾼들을 자연히 비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다. 신랑집에서는 저녁때가 다 되고 해도 신부가 오지 아니하자 무척 걱정을 하였다. 땅거미가 내렸을 무렵에는 신부를 태운 가마꾼과 짐을 싣고 오는 이 신부 일행들밖에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고 있었다. 신랑집으로 향하는 길에 큰 고개가 있었다. 이제는 주위에 어둠이 깔려 있고 정말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그 고개를 오르는데 앞에서 황소에 짐을 싣고 가던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 앞에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큰 호랑이였던 것이다. 이를 본 황소는 화가 나서 그 호랑이에게 달려 들었다. 황소는 신부 일행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 호랑이와 싸웠다. 이때 신부일행은 걸음을 재촉하여 허둥지둥 신랑집에 도착하였다. 신부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신랑집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아 간신히 도망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도와 주셨다고 하며, 무사히 도착한 것을 반겨 주었다. 이 이튿날 동네의 장정들이 그 고개에 가보니 황소와 호랑이가 함께 죽어 있었다. 황소는 끝내 목숨을 걸고 호랑이에 맞서서 싸우다가 죽고 만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황소라고 하여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황소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밤이면 그곳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물탕 마을의 계모임으로선 애경사때 모임을 갖는 칠성회가 있으며, 아주 먼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밭에 가서 소나무에 사람을 며칠동안 매달아 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을을 위한 제사는 없었다.

텃골 마을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계라든가, 제사는 없었으며 단지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하루를 윷놀이를 하며 즐긴다고 한다.

숲마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고 점차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어 씨족사회의 많은 풍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10) 종교현황

물탕 마을과 숲말 마을은 종교단체는 없지만 텃골 마을에는 온양중앙교회가 있으며, 신도수는 120명이고, 온천 감리교회는 신도수가 100명이다.

11) 공장현황

신곡리는 공장은 없지만, 온천이 개발됨으로 마을의 옛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변하여 많은 호텔과 유흥가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곳에는 잘 지어진 호텔들이 많은데 다음과 같다.

① 물탕 마을의 숙박시설

力 파라다이스 호텔 : 객실 214개의 대형 호텔로서 객실이 있던 곳이며, 야외 수영장, 잔디구장등을 갖추고 있다.

力 로얄호텔 : 객실 72개. 기타 레스토랑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力 건영글로리 콘도 : 객실 220개의 호텔식 콘도이며, 부대시설은 실내 수영장, 옥외 슬라이드 풀등이 있다.

② 텃골 마을의 숙박시설

力 늘봄호텔 : 객실 79개로 부대시설로는 레스토랑이 있다.

力 한국콘도 : 객실 107개실의 회원제 콘도이다.

力 포시즌 콘도 : 객실 117개의 회원제 콘도로 실내 수영장이 있다.

力 한국 통신 도고 수련원 : 한국 통신 직원들의 전용 휴양 시설이다.

12) 마을의 특성

물탕 마을은 도고온천이 있는 마을로서 도고면 다른 마을에 비해 상업과 기타 서어비스업이 발전하였으며, 숙박시설, 목욕시설 및 식당, 하상주차장등 많은 편의 시설이 있는 마을로서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 시골의 정취를 느낄수 있으며, 도고 온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곳을 조금 지나면 들이 펼쳐져 있는 마을이다.

텃골 마을은 도고온천과 인접한 마을이며, 농업이 생활기반인 마을이다.

마을에는 황소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신언리와 연결되는 고개로서 황소고개의 전설이 남아 있으며, 아직도 시골 마을의 전경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이다.

숲말 마을에는 물탕 마을 바로 옆에 있는 마을로서 온천 빌라가 있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예전에 비해 시골의 인심과 정취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아쉽고, 숲말 마을 위쪽에 샘골이라는 찬샘이 있다.